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조한국

**Epidermolysis bullosa**

피부나 점막에 돌발적으로, 또는 적은 자극에도 수포(bullae, Vesicles)를 형성하는 희유 피부질환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몇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임상소견: 호발부위는 다리, 엉덩이, 팔꿈치(Fig.71), 손가락(Fig.72), 후두부로 적은 마찰, 압력에도 물집이 생긴다.

수포는 맑고 가끔 혈액이 섞이기도 한다. 때로는 터져서 매우 쓰라고 아프다. 구강점막에는 white spots나 patches를 나타내는데 보존등의 치료시에 수포를 형성하기도 한다(Fig.69, 70), 이 질환은 치아형성장애를 가져와 치아가 선천적으로 결손하거나 형태이상치나 발육부전치를 유발시킨다.

원인: 불명

치료 및 예후: 대증요법이 있을뿐 특효 치료법은 없다. Simplex form은 다소 치료도 가능하다. dystrophic form은 자극을 피하여야 한다. 항생제 Corticosteroids가 유효할때도 있다.

감별진단: Erythema multiforme

- Pemphigus
- Apthous stomatitis
- bullous lichen planus
- Chicken p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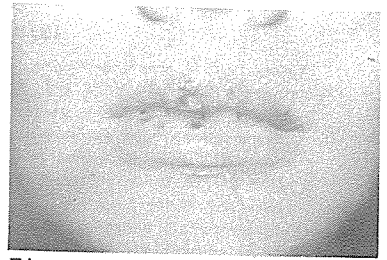


Fig. 69



Fig.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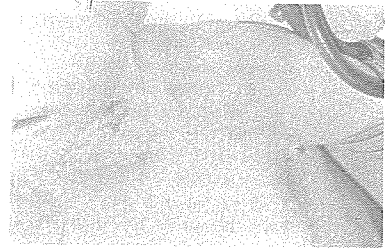


Fig.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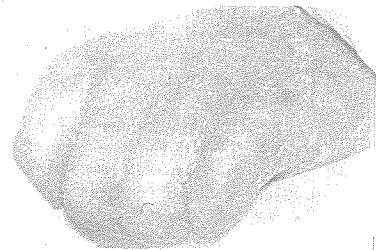


Fig. 72

서울시인정 제76호

**世進齒科技工所**

代表 朴 振 敦

서울·마포구 노고산동 49~30

신촌 로-타리-이덕우치과 옆

☎ 32-8627 · 33-2784